용산구 한남동

# '韓 축구 전설' 차범근 카타르월드컵서도 해설위원으로 활약할까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은 우리나라 축구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1978년 독일에 진출해 1989년까지 독일에서 약 12년을 현역 선수로 뛰면서 총 308경기에 출장해 98골을 기록했다. 분데스리가 사상 역대 최고 외국인 공격수로 평가 받으며 아직까지도 현지에서는 전설적인 선수로 회자된다.

그의 별명 '차붐'은 독일에서 선수생활을 할 당시 붙여진 것으로 독일인들이 '차범근'을 발음하기 어려워 '차붐'이라고 불렀다.

그는 비빔밥에 참기름 넣어 먹는 것을 사치로 여길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소질을 보여 서울 경신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줄곧 기량을 키웠다. 특히 고려대학 시절에는 당시 최연소로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그의 진가는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다.




빌딩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42

공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1978년 독일 분데스리가 'SV 다름슈타트 98'에 입단했다. 당시 데뷔전에서 두 골을 도우며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군 문제로 인해 독일에서 단 한 경기만 치르고 한국에 돌아와 재입대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관계는 이랬다. 1976년 10월 공군에 입대할 당시 공군과 육군 복무기간은 각각 35개월, 30개월이었다. 이후 공군이 제대를 8개월 앞당겨주겠다며 입대를 제안했다. 이에 그는 27개월의 공군 복무를 마치고 1978년 독일로 건너갔다. 하지만 군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입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군 복무를 마친 그는 1979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선수 활동을 시작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한 이듬해 팀을 UEFA컵(현 UEFA 유로파 리그) 정상으로 이끌었으며 1979년 시즌 동안 리그 12골, UEFA컵 11경기 3골로 첫 시즌에 46경기 15골을 기록하며 천부적인 축구 실력을 뽐냈다.

또 그의 실력은 박지성의 스승인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언급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감독이었던 퍼거슨은 1979년 차범근이 속한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 경기를 마친 후 "우리는 차범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해결 불가능한 존재다"며 차범근을 치켜세웠다.

이후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1983년 '바이어 04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1980년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1988년 레버쿠젠에서도 UEFA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각기 다른 두 팀에서 UEFA컵 우승을 차지하는 보기 드문 선수가 됐다. 이후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친 차범근은 수원 등 K리그에서 프로축구팀 감독,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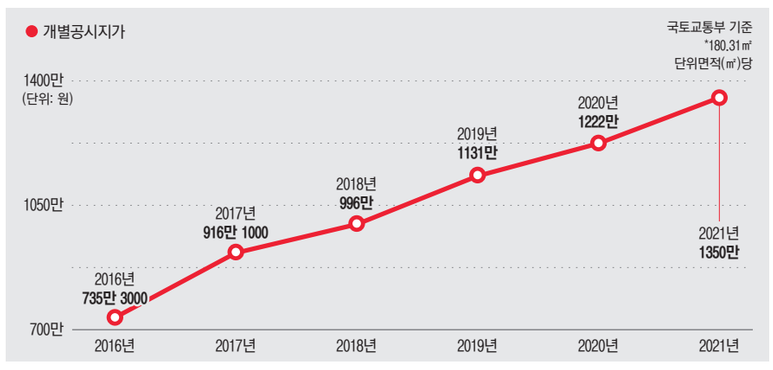
한국 축구사는 물론 독일 축구계에서도 큰 발자국을 찍은 차범근은 2019년 독일 정부로부터 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십자공로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정신, 사회복지, 자선 등의 분야에서 독일을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당시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는 "축구가 독일 문화의 일환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차범근님은 한국과 독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라며 축구를 통해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힘쓴 공로를 치하했다.

한편 차범근은 여러 방송사를 오가며 월드컵 때마다 축구 해설위원으로 축구 팬들을 만나고 있다. 2002년 한일월드컵, 2006년 독일월드컵, 2010년 남아공월드컵, 2014년 브라질월드컵, 2018년 러시아월드컵 등을 비롯해 올림픽 축구에서도 해설위원으로 활약했다. 내년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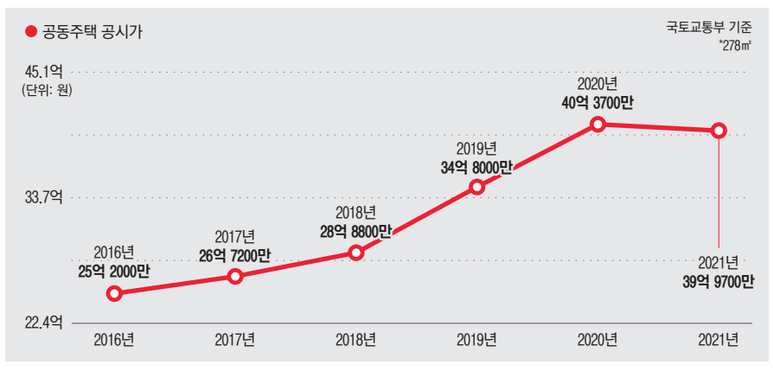
## 빌딩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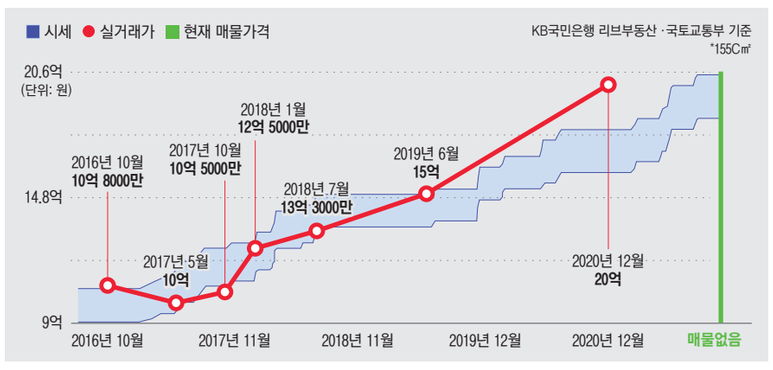

## 제이하우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4-3




## 한남힐스테이트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7




## 이효리

현)가수



이효리는 고등학교 시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캐스팅돼 1998년 5월 걸그룹 핑클로 데뷔, 팀의 리더를 맡았다. 핑클은 데뷔곡 'Blue rain'을 통해 SBS인기가요에서 2위를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이후 후속곡 '내 남자친구에게' '루비' 등이 큰 성공을 거두며 국민 걸그룹으로 거듭났다. 특히 2집 타이틀곡 '영원한 사랑'은 가사 '약속해줘~'가 유행어가 됐을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핑클에서 뛰어난 노래실력과 털털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이효리는 4집 앨범까지 발매한 뒤 팀 활동을 접고 솔로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정규 1집 솔로앨범 타이틀곡 '10 minutes'을 내놓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가요차트 1위를 석권했다. 이후 'U Go Girl', 'Chitty Chitty Bang Bang' 'Bad Girls' 등 솔로곡들을 다수 내놓았다.



## 김영훈

현)대성그룹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김수근 대성그룹 회장의 3남으로 서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및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을 수료한 후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청년시절 목회자의 꿈을 꿨지만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은 뒤 3대째 회사를 맡아 운영하며 대성그룹을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세계 최대 민간에너지 기구이자 글로벌 에너지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 공동의장직을 맡아 글로벌 에너지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발돋움했다. 그는 기업의 장·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계획대로 이행하며 기업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는 텔타정보통신 회장, 감마정보통신 회장, 제9대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에너지분야 최고 훈장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 박철

전)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박철 전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해양학 이학석사, 미국 텍사스A&M 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물해양학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 해양학과 조교수, 미국 텍사스A&M대 해양학과 객원연구원, 충남대 자연과학대학 학장, 한국해양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2016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연차총회 집행이사회에서 박 교수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앞서 그는 2012년부터 4년 간 PICES 부의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PICES는 북태평양지역에서 정부간 국제해양기구로 1992년 설립됐으며, 회원국은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6개국이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G밸리, 국가 산업단지로 재탄생… 총 192만 2261㎡ 규모

서울특별시 구로·금천구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원 총 192만2261㎡ 부지에 대해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G밸리 개발계획 변경(복합시설 용지계획)과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아우르는 G밸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이다.

시는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G밸리 입주기업,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G밸리의 개발계획 변경과 함께 개발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최초 수립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서울디지털운동장부지 개발 기반을 마련했으며 단계적 지원거점 개발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이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간 교류, 연구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13개의 전략거점을 선정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G밸리 국가산단 개요**

| | |
|---|---|
| 위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192만 2261㎡ |
| 내용 | •기업 간 교류 등 지원시설 확충 위한 13개 전략거점 선정<br>•도로용량, 녹지공간 등 산업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br>•산업 간 융복합 촉진 위해 업종 제한 최소화 |
| 지원거점 개발 특징 | •공공부지: 연면적 30% 이상의 연구개발센터, 창업지원시설 등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 의무 도입<br>•민간부지: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통해 인프라 개선 |

자료: 서울시

지원거점 부지는 이용도가 낮은 공공용지와 역세권 내 노후(30년) 민간 공장부지가 대상이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용지변경이 가능하다.

이어 지원거점 개발 시 공공부지는 연면적 30%이상 R&D(연구개발)센터,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업교류 혁신지원 공간'을 의무 도입한다. 민간부지는 용지변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지가차액 50% 기부채납)를 통해 산업혁신 지원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지원시설 인프라를 개선한다.

G밸리 단지의 주요 가로변에는 특화가로를 계획했다. G밸리 1,2,3단지별 주요 가로축과 역세권 연계축을 '산업교류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저층부 건축물 배치를 다양화하고 용도를 활성화한다. 특히 3단지 가산디지털역과 안양천 연계축은 '수변연계 활성화 가로'로 지정해 카페 등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지정, 아케이드 설치 등 특성화할 예정이다.

출퇴근 인구와 외부 유입 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혼잡을 낮추기 위해 5~7차선으로 교통량을 확대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2, 3단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두산길 지하차도 사업도 추진한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의견 청취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12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공람을 시행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현재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총 294단지, 14만1593가구다.

이들 단지의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단지 △유지관리형 130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6단지 △재건축 11단지로 분류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가구수를 1만 3471가구로 예측해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나왔다. 교통 분야는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의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만2657가구로 제시했다. 연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허가우선순위를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담았다. 소규모·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세대 구분형 리모델링 땐 세대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모두 거친 후 내년 3월에 확정·고시한다.